

보도시점 2026. 10. 2.(금) 08:00 배포 2026. 10. 2.(금) 08:00

문학의 미래, 국민의 손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국민추천제 최초 도입

- 10. 2.~23. ‘국민추천제’ 통해 문학진흥 정책 자문에 응할 문학 분야 전문가 발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추천제(www.hrdb.go.kr/OpenRecommend)’를 활용해 10월 2일(금)부터 23일(금)까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체부에 설치된 기구로서, 문학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학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에 응한다.

기존에는 문학 관련 협회·단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위원 후보를 추천 받았으나, 위원 구성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최초로 국민 추천을 병행한다. 누구나 자신을 포함해 작가·평론가 등 문학 창작을 비롯해 출판·유통 분야 등에서 문학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 추천 후보자와 관계기관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토해 11월에 14명 위촉 예정

문체부는 국민 추천을 통해 발굴한 후보자와 관계기관 추천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문학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의 검토를 진행한 후 11월에 민간위원 14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 창작 환경을 다지고 우리 문학의 해외 진출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홍필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이정엽 (044-203-2725)

